

가끔 에스페란토 얘기 나오는데

○ ○

사실상 인도유럽어족 언어인 에스페란토보다는 오히려 문화중립적이고, 문법적 모호성이 없어서 소통에 착오가 생기기 어렵고, 인간을 넘어 컴퓨터와의 직접적인 소통도 상정한 로지반이 더 인터내셔널에 걸맞는 단어 아닐까? 로지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말하는 본능적 방식과 안 맞다느니 하지만 진지하게 국제보조어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로지반 약 좀 팔자면 로지반은 언어의 태생부터 사피어 워프 가설에 영향을 받아서 인간 사고를 언어가 제한하지 않도록 만들어졌어. 그래서 로지반은 정말 영어, 프랑스어와 같은 자연어와 비교했을 때 매우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표적이고 제일 유명한 장점이 문법적 모호성의 부재야.

예를 들면 ‘커다란 친구의 가방’이나 ‘The woman hit the man with an umbrella.’ 같이 문법적으로 모호한 문장은 로지반에서는 없어.

그 외에도, 성별, 시제, 단수/복수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수량, 시제를 항상 생각하게 만드는 영어나 성별을 항상 생각하게 만드는 프랑스어와 같은 자연어와 달리 완전히 선택적이야. 그래서 성차별적인 단어 문제 같은 건 로지반에 있을 수 없어.

물론 일반적인 언어랑 개념이 완전히 달라서 명사, 동사도 없긴 한데. 그래도 공식 문법서도 700페이지로 자연어에 비하면 정말 적고, 단어도 gismu라는 1200개의 근본 단어를 조합해서 수백만 개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 수가 약 50만 개인 거 생각하면 1200개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님. 게다가 문법도 항상 예외가 없고, 간결하고 유연해서 그리 어렵지도 않아.

로지반을 대충 맛만 보자면

말했듯이 로지반에는 명사, 동사가 없고 대신 sumti와 selbri가 있어.

그리고 selbri의 빈 자리에 sumti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bridri라고 불러. 예를 들면 ‘레닌이 트로츠키를 만났다.’에서 레닌과 트로츠키가 sumti, ~이 ~를 만났다가 selbri야.

mi tavla do le lojvo

sumti selbri sumti. sumti

mi, do는 각각 화자와 청자를 뜻하는 sumti

tavla는 ‘x1이 x2에게 x3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x4라는 언어로 말한다’는 뜻이야.

뭔 개소리인가 싶을 텐데 일단 sumti인 mi, do, le lojvo를 selbri인 tavla에 대입해보면

mi가 do에게 le lojvo 라는 주제에 대하여 x4라는 언어로 말한다.

가 돼. x4가 비었는데 이건 zo’e라고 영단어 it과 비슷한데 청자가 넣었을 때 참이 되는 sumti를 상황에 맞게 생각하면 돼.

‘해석하면 나는 너에게 le lojvo에 대해 말한다’야.

그리고 여기서 le lojvo는 lojvo라는 ‘x1은 x2를 관점으로 봤을때 로지반 언어/문화이다’라는 뜻의 selbri에 le를 붙여서 selbri를 sumti로써 기능하게 바꾼 거야. 이렇게 sumti가 된 le lojvo는 lojvo의 x1 자리를 의미해. 즉 le lojvo는 로지반 언어라는 뜻의 sumti인 거야.

이제 번역하면 나는 너에게 로지반에 대해 말한다고 되겠지.

보다시피 한국어에와 같은 자연어에서는 여러 단어로 표현되는 개념들이 로지반에서는 tavla만으로 표현돼. 반대로 어찌보면 로지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청자, 화자, 화제 같은 단어들은 동음이의어와 유사한 거지.

자세한 건

<http://lojban.pw/cil/uncil-1.2.8.1/cil.pdf>

공식 로지반 책에서 일부 오류만 고친 거인데, 교과서나 논문 같은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직접 배울 수 있도록 쓰인 거야.